2부 영감 — 하나님의 숨결로 된 글

성경론 9편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다 · 영감 교리의 역사와 비평

워필드 3장 성경의 영감 · 워필드 8장 영감과 비평 · 워필드 부록 3 성경의 권위와 영감 · 바빙크 5장 성경 [109]–[111](교회사 속 영감 교리) · 프레임 부록 L 맥고완 『성경의 신적 호흡』 서평 · 신앙고백서 1.2(1.4, 1.5, 1.9 참조) · 신앙고백서 1장 1.2

> ❓ **성경에 틀린 게 없다는 거, 사실 근본주의자들이 100년 전쯤 만들어 낸 주장 아니야?**

🧭 흐름 한눈에

워필드는 자기 시대인 19세기 말에서 출발한다. 그때 '새것'이었던 쪽은 높은 영감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를 끌어내리려던 이론들이었다. 맞은편에는 폴리캅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거쳐 핫지까지 한결같이 이어진 '교회의 영감 교리'가 있다. 바빙크는 교부 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로 이 사실을 확인한다. 동시에 정통주의가 때로 지나치게 말했다는 점도 정직하게 인정한다. 워필드는 교회가 이 교리를 가진 뿌리를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찾는다. 그리고 1880년 강연에서 비평이 이 교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음을 따져 보인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이 21세기의 제안, 곧 “무오성이라는 말은 최근 것이니 불오성만 쓰자”에 답한다. 결론은 이렇다. 무오는 100년 전의 발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어진 고백이다. 그 뿌리는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신다”는 성경 자체의 가르침이다.

📜 절별 정리

📜 1. 바벨탑 같은 '새 이론'과 한결같은 '교회의 교리' (워필드 3장)

바벨탑처럼 목소리가 뒤엉킨다고 평한다. '진보' 사상가 다섯이 모이면 이론이 여섯 개 나올 만큼 제각각이었다. 그래도 세 가지에는 모두 동의했다. 영감은 생각보다 덜 확정적이고, 성경에는 오류가 더 많으며, 그러니 일부 가르침은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 맞은편에 '교회의 영감 교리'가 있다. 이 교리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고, 최근에 생기지도 않았으며, 시대에 따라 바뀌지도 않았다. 내용은 단순하다. 성경은 '신탁의 책', 곧 성경이 진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책이다. 이 교리를 비판하던 샌데이조차 이 생각이 “거의 초창기부터” 있었다고 인정했다. 워필드는 그 '거의'라는 말도 빼야 한다고 본다.

1. 1894년에 '새것'은 무오를 깎는 쪽이었다
2. 새 이론들은 '높은 교리 반대'에서만 일치
3. 교회의 교리: 개인 것 아님, 처음부터, 불변
4. 성경 = 신탁의 책, 진술 전부가 하나님 말씀
5. 비판자 샌데이도 '초창기부터'라고 인정

> **로마서 3:2**
>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신탁)'을 맡았다. '신탁의 책'이라는 이름의 성경적 뿌리다(바빙크 5장이 인용. 워필드 정리본에서는 정리자 보충)
>
>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 2. 폴리캅부터 웨스트민스터까지 — 교부·주석·신조의 증언 (워필드 3장 · 바빙크 5장 [109])

워필드는 같은 고백을 이어 온 사람들을 차례로 든다. 폴리캅, 이레나이우스,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뱅, 러더포드, 백스터, 찰스 핫지, H. B. 스미스다. 신조도 같은 믿음을 공식화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성령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고백한다. 로마 교회의 트리엔트·바티칸 공의회도 하나님을 성경의 저자로 선언했다. 개신교 쪽에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1530)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다. 바빙크는 교부 시대를 이렇게 정리한다. 교회는 성경 없이 지낸 적이 한 번도 없다. 교부들이 성경 교리를 따로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류처럼 보이는 곳을 만나면 저자를 탓하지 말라고 했다. 먼저 사본, 번역, 자기 이해를 의심하라는 것이다. 바빙크는 교부들이 저자의 조사와 기억, 문체 차이도 인정했다는 점을 덧붙인다. 그런 인정이 신적 기원에 대한 믿음을 흔들지는 않았다.

신앙고백서 1.2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적은 뒤 이렇게 맺는다.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며, 믿음과 생활의 규칙이다.”(1647)

1. 교회는 성경 없이 지낸 적이 없다(바빙크)
2. 교부들에게 성경의 권위는 '기정사실'
3. 오류처럼 보이면 사본·번역·내 이해부터
4. 고대 신경부터 웨스트민스터까지 같은 전제
5. 교부들도 저자의 인간적 흔적을 인정했다

> **고린도전서 15:3-4**
>
> 고대 신조의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나온 자리(정리자 보충)
>
>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 **고린도전서 7:10-12**
>
> 테르툴리아누스가 '주의 명령'과 바울의 말을 나누려다 머뭇거린 본문이다. 작은 부분을 의심하는 일조차 드물었다는 증거다(워필드는 '7장'으로만 언급)
>
> 10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워필드는 교회사에 영감을 낮추는 흐름이 둘 있었다고 정리한다. 하나는 합리주의적 견해다. 성경 안에서 영감된 부분만 골라내려는 시도로, 소치니파, 화란 항론파, 예수회, 19세기 변증가들로 이어졌다.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적 견해다. 내 안의 '기독교적 의식'이 성경을 심사한다는 생각으로, 슐라이어마허 이후 개신교에 널리 퍼졌다. 바빙크는 같은 시기를 더 넓게 본다. 로마 교회도 영감은 고백했지만 교리의 마지막 기둥은 교회였다. 그래서 근대 비평의 결론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다. 반면 개신교는 성경 말고 다른 기둥이 없어서 영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바빙크는 정직하게 짚는 부분도 있다. 17세기 정통주의 일부가 저자를 '성령의 붓'으로만 보고 히브리어 모음 부호까지 영감되었다고 말하는 과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반대편의 축소, 곧 '종교 부분만 영감되었다'는 주장도 거부한다. 성경에서 교리와 역사는 한 덩어리로 얽혀 있어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이런 흐름들이 교회의 고백을 바꾸지 못했다고 본다.

1. 합리주의: 영감된 부분만 골라내려 한다
2. 신비주의: 내 안의 기준이 성경을 심사한다
3. 로마 교회는 교회가 기둥, 개신교는 성경뿐
4. 정통주의의 과장(모음 부호까지)은 인정
5. 교리와 역사는 얽혀 있어 나눌 수 없다

> **★디모데후서 3:16**
> “모든 성경”이 부분 영감과 맞선다(워필드 3장·8장, 바빙크 5장, 프레임 부록, 워필드 부록 3 공통 — 이 교리의 기둥)

> **마태복음 5:18**
> 율법의 일점일획까지 미치는 권위. 바빙크가 '종교 부분만 영감'이라는 주장에 맞서 드는 근거다
>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 **예레미야 36:20-26**
>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일. 바빙크는 '성경은 오류투성이'라는 공격이 근대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된 뿌리를 가졌다고 본다

> [20]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21]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22] 그 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23]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 왕과 그의
>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 [25]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

“교회의 교리이기 이전에 성경의 교리였고, 오직 성경의 교리이기 때문에 교회의 교리가 되었다” — 워필드

📜 4. 교회의 교리이기 전에 그리스도와 사도의 교리 (워필드 3장)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교리를 곧바로 받아들였을까? 워필드의 답은 한 문장이다. 예수님과 신약 저자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길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신약에서 “기록되었으되”는 그 한마디로 논쟁이 끝나는 말이었다. 또 이 교리를 거부하는 학자들도 신약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점은 인정한다. '진보' 학자 슐츠는 그리스도까지 성경을 '언어까지 영감된' 말씀으로 여겼다고 인정했다. 예수님이 시대의 지식에 갇히셨다는 케노시스 이론이나, 당시 표현을 편의상 빌렸다는 적응설도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다. 워필드는 이 증거를 산사태에 빗댄다. 대표 본문 몇 개가 전부가 아니다. “성경이 이르되”를 “하나님이 이르시되”와 같은 뜻으로 쓰는 수백 구절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1. 신약에서 “기록되었으되”는 논쟁의 끝
2. 반대 학자들도 '신약의 교리'라고 인정

4. '성경이 이르되' = '하나님이 이르시되'

5. 쟁점은 '무엇을 가르치나'가 아닌 '참인가'

> **★요한복음 10:35**
>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주님이 성경의 세부까지 신뢰하셨다는 증거다(워필드 3장·8장, 바빙크 5장 공통 — 기둥)

> **★디모데후서 3:16**
> 바울의 완전 영감 선언

> **★베드로후서 1:21**
>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나왔다(워필드 3장·8장·부록 3, 바빙크 5장 공통 — 기둥)

> **로마서 9:17**
>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똑같이 다룬다(워필드 8장. 3장에서는 예시)
>
>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 **갈라디아서 3:8**
>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에 하나님의 앞지식을 돌린다(워필드 3장·8장)
>
>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 **히브리서 3:7**
>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구약 인용이 곧 성령의 말씀이다(워필드 8장, 바빙크 5장)
>
>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쟁점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참인가의 문제이다." — 워필드

📜 5. 교회는 왜 이 교리를 놓지 않았나 (워필드 3장)

교회는 다른 교리들은 흔들려도 영감 교리만은 꾸준히 붙들었다. 워필드는 그 이유를 교회의 본능에서 찾는다. 교리도, 복음이 주는 소망도 결국 성경의 신뢰성 위에 서 있다는 감각이다. 그는 반론 하나를 정직하게 인정한다. 이론상 기독교의 초자연적 기원은 영감 교리보다 먼저 역사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보통 신자는 역사학자가 아니다. 그리고 역사가 입증하는 계시 안에는 완전 영감을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미 들어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워필드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어느 쪽 어려움이 더 큰지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교리를 버리면 교회 전체가 처음부터,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성경에 대해 속았다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사도들 편에 서는 쪽이 언제나 안전하다고 결론짓는다.

1. 교회의 본능: 교리와 소망은 성경 신뢰 위에
2. 보통 신자는 역사학자가 아니다
3. 역사적 입증이 오히려 완전 영감을 담는다
4. 어려움은 있다, 더 큰 쪽이 어디인가
5. 그리스도와 사도 편에 서는 것이 안전

> **(직접 인용 없음)**
> 이 대목은 구절보다 논리와 그리스도인의 경험(모노의 증언)으로 논증한다

📜 6. 신약 저자들은 스스로 영감을 주장했다 (워필드 8장)

영향이다. 그 결과 저자의 말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모든 단어에 틀림이 없다. 이것은 받아쓰기가 아니다.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말이다. 이 교리의 일차 근거는 저자들 자신의 주장이다. 워필드는 이것이 순환논증이 아니라고 말한다. 영감을 미리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들이 정직하다는 것만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평이 이 교리를 흔들려면 네 관문 가운데 하나를 넘어야 한다. 저자들이 영감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 동시대 교회가 그 주장을 거부했다는 것, 문서가 위작이라는 것,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첫 관문에 대해 워필드는 비평적 주해를 할수록 저자들의 영감 주장이 더 또렷해진다고 답한다. 반대 학자 로테도 신약 저자들이 엄격한 정통 영감론을 가졌다고 인정했다. 바울은 누가복음 구절을 구약과 나란히 '성경'이라 부르고, 베드로는 바울 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은 자리에 둔다.

1. 1880년 이미: 전부 신적, 전부 인간적
2. 전제하는 건 영감이 아니라 저자의 정직성
3. 비평이 넘어야 할 네 관문
4. 바울: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전한다
5. 신약을 구약과 같은 '성경' 자리에 놓았다

> **마태복음 10:19-20**
> 말할 것을 성령이 주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워필드 8장·부록 3)
>
> 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 **요한복음 14:26; 16:13**
>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워필드 8장·부록 3, 바빙크 5장. 워필드는 장만 표기)
>
>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
> **요한복음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린도전서 2:13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전한다. 단어까지 미치는 영감의 근거다(워필드 8장, 바빙크 5장)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4:37

“내가 써 보내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이다(워필드 8장·부록 3, 바빙크 5장, 프레임 부록 공통 — 기둥)

데살로니가전서 2:13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워필드 8장, 바빙크 5장)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마태복음 22:32

“나는 ~의 하나님이로라.” 예수님이 현재 시제 하나에 부활 논증을 거신다(워필드 8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갈라디아서 3:16

단수 '자손' 한 단어에 기대는 바울의 논증(워필드 8장, 바빙크 5장)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신명기 25:4와 누가복음 10:7을 함께 '성경'이라 부른다(워필드 8장·부록 3. 장절 확인은 정리자)

>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3:16

바울 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은 반열에 둔다(워필드 8장·부록 3, 바빙크 5장 공통)

📜 7. 사도 직후 교회는 받았다 — 만들지 않았다 (워필드 8장 · 워필드 부록 3) ^

둘째 관문은 동시대 교회가 이 주장을 거부했는가 하는 것이다. 워필드의 답은 분명한 '아니오'다. 1세기 말 로마의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참으로 성령에 이끌려” 썼다고 말한다(클레멘트 1서 47장). 바나바 서신은 마태복음을 '성경'으로 인용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신약을 구약과 같은 권위로 대한다. 이단들도 이 문서들의 권위를 인정했기에 오히려 그 말을 비틀어야 했다. 1889년의 짧은 글(부록 3)에서 워필드는 이 사실의 뿌리를 정리한다. 성경의 권위는 그리스도께 임명받은 사도들이 이 책들을 교회에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 넘겨주었다는 데서 나온다. 교회는 이정표처럼 그 권위를 알아보고 증언할 뿐, 권위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교회가 성경보다 먼저 있었다”는 반론에는 이렇게 답한다. 물어야 할 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출처다. 교회는 자기를 세운 사도의 권위보다 먼저 있지 않았다.

1. 클레멘트: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썼다
2. 바나바: 마태복음을 '성경'으로 인용
3. 이단조차 권위를 인정하고 왜곡했다
4. 교회는 이정표, 권위를 인정할 뿐 주지 않음
5. 기준은 '누가 썼나'보다 '사도가 넘겨주었나'

데살로니가후서 2:15

말로나 편지로나 받은 가르침을 지키라. 기록된 말의 권위다(워필드 8장·부록 3, 바빙크 5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갈라디아서 1:7-8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도 복음이 천사보다 위에 있다(워필드 8장·부록 3)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14

이 편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멀리하라. 기록된 편지가 가진 권위다(워필드 8장·부록 3)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에베소서 2:20

사도와 선지자는 터, 그리스도는 모퉁잇돌. 부록 3이 장절 없이 암시하는 그림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 8. 비평은 무엇을 남겼나 (워필드 8장)

셋째 관문은 위작 주장이다. 워필드는 참된 비평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열린 마음, 철저한 수집, 신중한 추론이다. 그런데 부정적 비평은 처음부터 초자연을 부정해 결론을 정해 놓았다. 그래서 학파마다 앞 학파를 무너뜨렸다. 파울루스는 슈트라우스에게, 슈트라우스는 바우어에게 무너졌다. 2세기의 증언은 사슬처럼 얽혀 있다. 이레나이우스가 폴리캅을 보증하고, 폴리캅이 이그나티우스를 증언하며, 이그나티우스가 여러 신약 책을 증언한다. 그래서 하나만 빼낼 수 없다. 넷째 관문은

사례였지만, 요세푸스와 비문이 누가가 옳았음을 보여 주었다. 워필드는 완전 영감과 영감 없음 사이에 중간 지대가 없다고 본다. 성경의 현상이 저자들의 영감 주장을 반박한다면, 저자들은 광신자이거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비평은 이 교리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새 토대를 놓았다. 무오한 성경을 잃은 사람들은 무오한 교회와 교황을 스스로 만들어 냈다.

1. 부정적 비평은 결론을 먼저 정했다
2. 비평 학파들은 서로를 무너뜨려 왔다
3. 오류는 '양립 불가능'까지 입증해야
4. 루사니아·구브로 총독: 오류 주장이 뒤집힘
5. 완전 영감과 영감 없음 사이에 중간은 없다

> **누가복음 3:1**
> 루사니아. 오류로 지목됐다가 요세푸스와 비문으로 확인된 사례
>
>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 **사도행전 13:7**
>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 칭호가 정확했음이 확인된 사례(장절은 정리자 보충)
>
>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 **누가복음 2:2 · 사도행전 5:36 · 고린도후서 11:32**
> 구레뇨, 드다, 아레다. 1880년 당시 남아 있던 오류 후보와 워필드의 답(역주 표기)
>
> **누가복음 2: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
> **사도행전 5:36**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사백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 **고린도후서 11:32**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 9. "무오 대신 불오만 쓰자"는 최근 제안에 대한 답 (프레임 부록 L)

맥고완(『성경의 신적 호흡』, 2007)은 학자들이 무오성에 반대하는 세 가지 흔한 이유를 소개한다. 그 가운데 그가 받아들인 것은 하나뿐이다. 바로 이 편의 질문과 같은 주장, 곧 '무오성'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겼고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프레임은 네 가지로 답한다. 첫째, 맥고완은 무오성을 비판하면서도 끝내 정의하지 않는다. 무오성은 문자주의나 과학적 정밀성이 아니라 '진실함'을 뜻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은 성경이 직접 가르친다. 둘째, 역사 서술로 신학적 입장을 증명하려 하면 발생론적 오류에 빠진다. 발생론적 오류는 어떤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로 그 생각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잘못이다. 셋째, '불오성'은 신앙고백서 1.5와 1.9에 쓰인 더 오래된 말이다. 게다가 사전으로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어서 무오보다 더 강하다. 넷째, 무오주의가 새 입장이고 칼뱅도 믿지 않았다는 레이드의 주장은 맥고완 스스로 멀러가 반박했다고 인정한다. 또 맥고완이 바빙크를 자기편으로 인용한 대목은 성경 영감이 아니라 교회의 교리 형성에 관한 문맥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오류를 '숨 쉬어 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신앙고백서의 용례: 1.5 “그 불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 / 1.9 “성경 해석의 불오한 규칙은 성경 자체다”(1647)

1. 맥고완이 받아들인 건 '말이 최근'이라는 반론
2. 무오성 = 문자주의 아닌 '진실함'
3. 출처로 참·거짓을 가리면 발생론적 오류
4. 불오는 1647년 고백서의 말, 오히려 더 강함
5. 오류를 숨 쉬어 내신다면 속이시는 것

> **디도서 1:2**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요한복음 17:17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오성은 성경의 직접 가르침이다(프레임. 바빙크 5장도 복음으로서의 말씀을 말할 때 인용)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디모데후서 3:16

기록된 '본문'이 하나님이 내쉬신 것이다. 그러니 오류 있는 원본은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오류에 숨을 불어넣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류를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 프레임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워필드	아니다. 완전 영감은 폴리캅부터 핫지까지 이어진 교회 전체의 교리다. 그 교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먼저 가르친 것이다.	교회사 증언 목록, '산사태' 비유, 비평이 넘어야 할 네 관문, 사도적 수여(이정표)	성령의 내적 증거. 이 장들은 역사와 문헌 증거로만 논증한다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권위는 기정사실이었다. 다만 17세기 정통주의의 일부 과장은 고쳐야 한다.	잇는 넓은 역사, 과장과 축소를 함께 비판함	모르는 네덜란드 맥락. 프레임의 설명)
프레임	말의 출처로 내용의 참·거짓을 가릴 수 없다. 무오성은 '진실함'이며, 그것은 성경 자체의 가르침이다.	무오와 불오의 정의, 발생론적 오류, 바빙크에 대한 오독 바로잡기	교부 시대의 증언 자체 (역사 서술은 맥고완 요약 정도)
신앙고백서	1647년에 이미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1.2), “불오한 진리”(1.5)라고 고백했다. 근본주의보다 수백 년 앞선다.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렸다 (1.4)	영감 교리의 역사를 따로 논하지 않는다. 고백서 자체가 역사 증거가 된다 — 워필드가 메운다
오웬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이 편의 재료에 없음) — 워필드·바빙크가 메운다. 1659년에 성경의 '신적 기원'을 변호하는 논고가 있었다는 연대만 짚을 수 있다.	—	역사 논증 전부

- 워필드는 “교회가 처음부터 믿었다”는 증언의 사슬을, 바빙크는 그 사슬이 겪은 굴곡(과장과 축소)을 보여 준다. 그래서 둘을 함께 보면 정직한 역사가 된다.
- 워필드는 1880년과 1894년의 비평에, 프레임은 2007년의 제안에 답한다. 130년 넘게 반론은 이름만 바뀌었고 쟁점은 같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참인가?”
- 신앙고백서 1.2·1.5는 “말이 최근에 생겼다”는 주장을 문서로 반박하는 1647년의 증거다. 프레임이 바로 그 1.5·1.9의 '불오'를 들어 맥고완에게 답한다.

- 세 책 모두 내적 확신의 문제는 이 편에서 비워 둔다. 이 자리는 신앙고백서 1.5와 오웬이 메운다(성령의 내적 증거 편).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유기적 영감
성령이 저자의 인격·은사·기억·문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쓰셔서,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전부 사람의 글이 되게 하셨다는 가르침.

무오성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참이며 틀린 것이 없다는 성질.

불오성
성경이 틀릴 수 없고 우리를 그릇 이끌 수 없다는 성질로, 사전적으로는 무오성보다 강한 말.

정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과 삶의 잣대로 삼는 책들의 목록(구약 39권, 신약 27권).

자필본
성경 저자가 처음 기록해 원래 독자에게 전해진 원래 문서로,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사본으로 전해진다.

완전 영감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역사와 단어까지 똑같이 영감되었다는 가르침.

생각만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는 가르침으로, 받아쓰기와는 다른 말.

속사도 교부
사도들 바로 다음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로마의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등).

발생론적 오류
어떤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로 그 생각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잘못.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무오는 100년 전의 발명이 아니다. 교부, 종교개혁자, 1647년 고백서, 19세기 신학자로 이어진 교회 전체의 고백이다.
- 교회가 이 교리를 가진 이유는 그것이 먼저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리였기 때문이다.
- 비평도, 최근의 용어 변경 제안도 쟁점을 바꾸지 못했다. 쟁점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 참인가”다.
- 역사에는 과장과 축소가 있었지만, 그 둘을 걸러 낸 중심은 한결같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시고, 그분이 숨 쉬어 내신 말씀은 참되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워필드 · 제3장 성경의 영감
- 워필드 · 제8장 영감과 비평
- 바빙크 · 5장 성경

- 워필드 · 부록 3 성경의 권위와 영감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